

종교개혁, 야훼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국대약

성문법

구전법

문자적, 실천종교,
유일(단일)신

교회학의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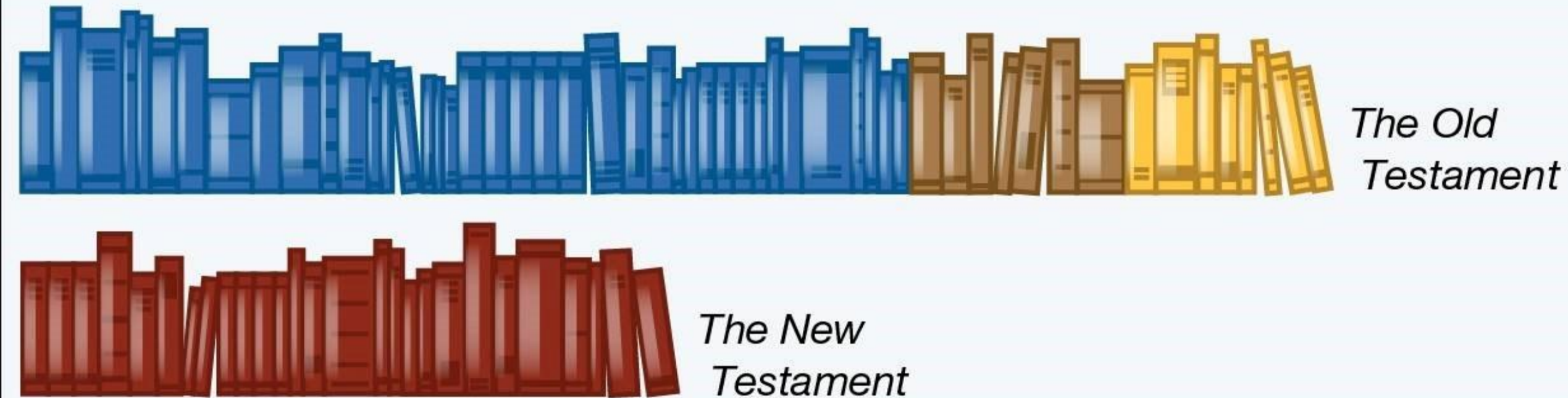
구약성경 46권

신약성경 27권

교회법과 교회전통
삼위일체신앙

	가톨릭 (칠십인 역본에 따라)	정교회	개신교 · 유다교
오경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동일	동일
역사서	여호수아기, 판관기, 룻기, 사무엘기 상·하권, 열왕기 상·하권, 역대기 상·하권, 에즈라기, 느헤미야기, 토빗기, 유딧기, 에스테르기, 마카베오기 상·하권	마카베오기 상·하권 빠짐	토빗기, 유딧기, 에스테르기의 일부 (히브리어 성경에 없는 부분), 마카베오기 상·하권 빠짐
시서와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코헬렛, 아가, 지혜서, 집회서	동일	지혜서, 집회서 빠짐
예언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애가, 바룩서, 에제키엘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드야서, 요나서, 미카서, 나훔서, 하바쿱서, 스바니야서, 하깨이서, 즈카르야서, 말라키서	바룩서 빠짐	바룩서, 다니엘서의 일부 (아자르야의 기도, 세 젊은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뱀) 빠짐

The Bible is comprised of individual “books” (66 in **Protestant** Bibles, 73 in **Catholic**, 81 in **Orthodox**) separated into two main sections:



The canon of the Protestant Bible totals 66 books—39 Old Testament (OT) and 27 New Testament (NT); the Catholic Bible numbers 73 books (46 OT, 27 NT), and Greek and Russian Orthodox, 79 (52 OT, 27 NT) (Ethiopian Orthodox, 81—54 OT, 27 NT).

로마 가톨릭과 비잔틴 정교회의 비교

로마 카톨릭 교회	정교회
Catholic (공통적, 보편적)	Orthodoxe(정통의)
라틴어 사용	그리스어 사용
교황 수위권 인정	교황 수위권 불인정
통일적인 교회 조직	16개 교회 연합체
그레고리우스 력	율리우스 력
예배 중 반주	예배 중 무반주
사제들 독신	기혼 남성 사제 가능
회당에 의자 비치	회당에 의자 미비치
부분 세례	침례 세례
구약성경 46권	구약성경 49권

[illegible]

**삼화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
(삼상 10:1)일 가능성이 높다.**

Gutenberg Bible, 1st Printed Bible, Latin Vulgate, 1456

구텐베르크의
불가타 성경
(1456)
최초의 활자
인쇄본,
삽화는 목판



가톨릭교회 구원론 이해에 필요한 두 가지 자료

- 첫 번째, 가톨릭교회가 그리스도교(개신교)의 종교개혁운동에 대한 반(역)종교개혁(counter reformation)의 일환으로써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이탈리아 북부 트렌토와 볼로냐에서 개최한 트리엔트 공의회(Council of Trient)가 반포한 교령.
- 두 번째, 1986년 교황청이 12명의 추기경과 감독들로 ‘교리서 위원회’(Commission of Cardinals and Bishops)를 구성하고 7년 만에 발간한 총 4부(제1부 신앙고백, 제2부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제3부 그리스도인의 삶, 제4부 그리스도인의 기도), 2,865조항, 1318쪽, 15개 교령, 44개의 장, 113개 교회법, 125개 저주선언으로 구성된 〈가톨릭교회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THE ROMAN CATECHISM
THE
CATECHISM
OF
THE COUNCIL OF TRENT



ORDERED BY THE COUNCIL OF TRENT
EDITED UNDER ST. CHARLES BORROMEO
PUBLISHED BY DECREE OF POPE ST. PIUS V

가톨릭
교회
교리서

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Sh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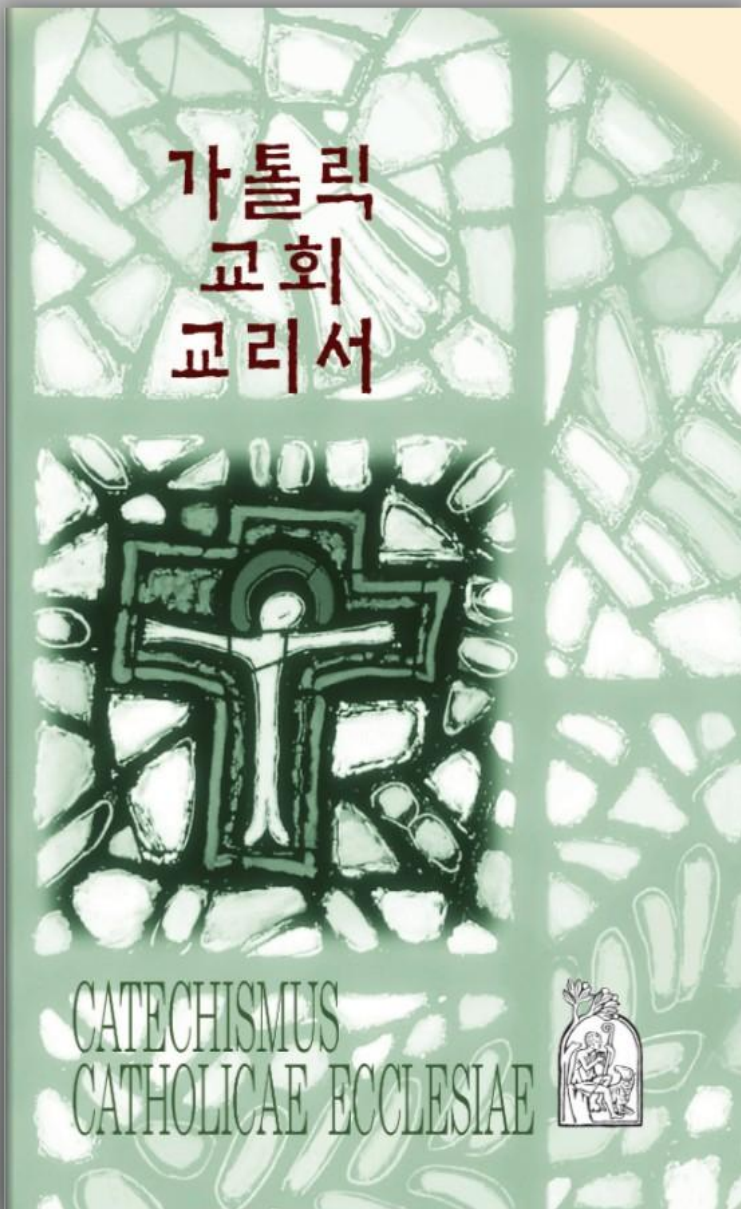
QRCode

Share it:



<https://ebook.cbck.or.kr/gallery/view>  Copy

➤ 스마트폰으로 위의 QR코드를 촬영하시면 <가톨릭교회 교리서> 전자책을 열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
회 제공 공식 전자책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판 16쇄)

이신 성령의 빛으로 가르침을 받은 덕분이다.”

- 76 3. 복음서의 기록. “성경 저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참되고 바른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어떤 것은 말이나 이미 쓰여진 글로 전해지는 많은 전승들 가운데서 선택하고, 어떤 것은 종합하고, 또 어떤 것은 교회의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하면서 선포 양식으로 네 복음서를 썼다.”¹⁰⁴⁾

1154 **127** 네 복음서는 교회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례에서 복음서들이 존중되고, 모든 시대의 성인들이 복음서에 비할 데 없는 매력을 느껴 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복음서보다 더 훌륭하고 소중하며 더 빛나는 교리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행동으로 실현하신 것을 직접 보고 간직하기 바랍니다.¹⁰⁵⁾

- 2705 기도 중에 내가 머무는 곳은 무엇보다도 복음서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내 불쌍한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습니다. 복음서에서 나는 늘 새로운 빛과 감추어진 의미와 신비의 의미를 발견합니다.¹⁰⁶⁾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단일성

- 1094 **128** 교회는 이미 사도들 시대에¹⁰⁷⁾ 그리고 그 후에도 성전(聖傳) 안에서 일관되게 예형론(typologia)에 의거하여 신·구약에서 하느님 계획의 단일성을 천명해 왔다. 예형론은, 때가 찼을 때 강생하신 당신 아드님의 인격 안에서 이루신 일들의 예형(豫形)을 구약의 하느님의 업적에서 식별해 낸다.

129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104. 계시 현장, 19항.

105. 성녀 체사리아, 「리킬다와 라테굴디스에게 보낸 편지」: SC 345, 480.

106.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 유고」 A, 83v: *Manuscripts autobiographiques*(파리, 1992), 268면.

107. 1코린 10.6.11; 히브 10.1; 1베드 3.21 참조.

에 비추어 구약 성경을 읽는다. 이러한 예형론적인 성경 읽기는 구약 성경의 고갈되지 않는 내용을 명백히 드러낸다. 그러나 이 때문에,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재확인해 주셨듯이, 구약 성경이 자신의 고유한 계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¹⁰⁸⁾ 한편 신약 성경 역시 구약 성경에 비추어 읽어야 한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교리 교육은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활용하였다.¹⁰⁹⁾ 옛 격언에 따르면 “신약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으며 구약은 신약 안에서 드러난다”(In Vetere Novum lateat et in Novo Vetus pateat).¹¹⁰⁾

130 예형론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1코린 15.28) 때 이루어질 하느님 계획의 완성을 향한 역동적인 순간을 가리킨다. 그러나 예를 들어 성조들에 대한 부르심이나 이집트 탈출 사건이 하느님 계획의 중간 단계라고 해서, 하느님 계획에서 그 고유한 가치를 잃지는 않는다.

V. 교회 생활과 성경

131 “하느님의 말씀은 교회에게는 버팀과 활력이 되고, 교회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힘, 영혼의 양식 그리고 영성 생활의 순수하고도 영구적인 원천이 되는 힘과 능력이 있다.”¹¹¹⁾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경을 가까이할 수 있는 길은 넓게 열려 있어야 한다.”¹¹²⁾

132 “성경 연구는 신학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야 한다. 말씀의

108. 마르 12.29-31 참조.

109. 1코린 5.6-8; 10.1-11 참조.

110. 성 아우구스티노, 「구약 칠경 발췌 주해」 2, 73: CCL 33, 106(PL 34, 623), 계시 현장, 16항 참조.

111. 계시 현장, 21항.

112. 계시 현장, 22항.

- 94 봉사직, 곧 사목적인 복음 선포, 교리 교육과 모든 그리스도교 교육은 성경 말씀으로 구원의 양식과 거룩한 힘을 얻는다. 그리스도교 교육에서는 전례적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¹¹³⁾
- 2653 **133** 교회는 “모든 신자가…… 성경을 자주 읽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필리 3,8)를 얻도록 강력하고 각별하게 권고한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이기 때문이다.”¹¹⁴⁾

간추림

- 134** “성경 전체는 단 하나의 책이며, 그 하나의 책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¹¹⁵⁾
- 135**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며,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하느님의 말씀이다.”¹¹⁶⁾
- 136** 하느님께서서는 성경의 참저자로서, 성경의 인간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분이시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활동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기록이 구원의 진리를 오류 없이 가르친다는 사실을 보증하신다.¹¹⁷⁾
- 137** 영감을 받은 성경을 해석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께

113. 계시 현장, 24항.

114. 계시 현장, 25항. 성 예로니모, 「이사야서 주해」, 서문: CCL 73, 1(PL 24, 17) 참조.

115. 생 빅토르의 위고, 「노아의 방주」, 2, 8: PL 176, 642. 같은 책, 2, 9: PL 176, 642-643 참조.

116. 계시 현장, 24항.

117. 계시 현장, 11항 참조.

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거룩한 성경 저자들을 통해 계시하시고자 한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령에게서 오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만 완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¹¹⁸⁾

- 138** 교회는 구약 성경 46권과 신약 성경 27권을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저술된 책으로 받아들이고 받든다.
- 139** 네 복음서는 성경의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이시기 때문이다.
- 140**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단일성은, 하느님 계획의 단일성과 그분 계시의 단일성에서 비롯된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준비하며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완성한다. 둘은 서로를 밝혀 주며, 둘 다 참된 하느님의 말씀이다.
- 141** “교회는 언제나 성경을 주님의 몸처럼 공경하여 왔다.”¹¹⁹⁾ ‘성경’과 ‘주님의 몸’은 그리스도인 삶 전체를 양육하고 인도한다. “주님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시편 119 [118], 105).¹²⁰⁾

118. 오리게네스, 「탈출기 강론」, 4, 5: SC 321, 128(PG 12, 320).

119. 계시 현장, 21항.

120. 이사 50,4 참조.

제 3 장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

1102 142 계시로써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친구를 대하시듯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과 사귀시며,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인간을 부르시고 받아들이신다.”¹⁾ 이러한 초대에 합당한 응답이 바로 신앙이다.

2087 143 신앙으로써 인간은 온전히 자신의 지성과 의지를 하느님께 복종시킨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 전체로,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동의를 드리는 것이다.²⁾ 성경은 계시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이러한 인간의 응답을 “믿음의 순종”이라고 부른다.³⁾

1814-1816

제1절 저는 믿나이다

I. 믿음의 순종

144 믿음의 순종이란(‘순종하다’라는 라틴 말 oboedire는 ob[에게]와 audire[듣다]의 합성어이다.) 자신이 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자유로이 순종하는 것이며, 이는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보증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러한 순종의 모범으로 제시하며, 동정 마리아께서는 이를 가장 완전하게 실현하셨다.

아브라함 - “모든 믿는 이의 조상”

145 히브리서는 조상들의 믿음을 찬양하면서 특히 아브라함

1. 계시 현장, 2항.
2. 계시 현장, 5항 참조.
3. 로마 1.5; 16.26 참조.

의 믿음을 강조한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히브 11.8).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된 땅에서 이방인으로 또 순례자로 살았다.⁵⁾ 믿음으로, 사라도 약속된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마침내 아브라함은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친다.⁶⁾ 59, 2570 489

146 이처럼 아브라함은 히브리서가 제시하는 믿음의 정의(定義)를 그대로 실현한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히브 11.1).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로마 4.3).⁷⁾ “믿음으로 더욱 굳세어진”(로마 4.20)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마 4.11.18)가⁸⁾ 되었다. 1819

147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신앙에 대한 증언이 풍부하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을”(히브 11.2.39) 만한 조상들의 모범적인 신앙을 찬양한다. 한편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내다보셨는데”(히브 11.40),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히브 12.2)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은총이다. 839

마리아 - “행복하십니다, 믿으신 분”

148 동정 마리아께서는 가장 완전하게 믿음의 순종을 실천하신 분이시다. 마리아께서는 믿음 안에서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494, 2617

4. 창세 12.1-4 참조.
5. 창세 23.4 참조.
6. 히브 11.17 참조.
7. 창세 15.6 참조.
8. 창세 15.5 참조.



THE SECOND VATICAN COUNCIL

Sacrosanctum Concilium
Lumen Gentium
Dei Verbum
Gaudium et Spes

Introductory Essay by Pope Benedict XVI

IGNATIUS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회식 장면

일시	1962년 10월 11일~1965년 9월 14일 (총 4회기)
장소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소집자	교황 요한 23세
	교황 바오로 6세
참석자	2,625여명

제2차 바티칸 공의회

-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특징은 교회의 ‘쇄신과 적응(aggiornamento)’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세계교회로의 확장과 교회일치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사목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입니다.

주요 특징

- 쇄신과 적응(Aggiornamento): 교황 요한 23세가 공의회를 소집한 주된 목적은 교회를 현대 사회의 흐름에 맞춰 ‘쇄신하고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 교회에 대한 이해 변화: 공의회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과 투쟁하며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물러 있다고 이해했지만, 이후에는 세상 안에서 교회의 위치와 역할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 **세계교회로의 확장:** 이전 공의회와 달리 서구 주교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의 주교들이 대거 참석하며 세계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 **교회일치운동의 적극화:** 종교개혁 이후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타 종교 및 그리스도교 단체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교회일치운동에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 **사목적 방향 전환:** 교리나 이단에 대한 논쟁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던 이전의 공의회와 달리, 사목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어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타진했습니다.
- **성령강림에 비전되는 위대한 사건:** 교황은 이 공의회가 전 인류와 세계를 새로운 성령강림으로 혁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포하며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가톨릭의 변화

- 자국의 미사 및 미사경본, 자국어 성경과 찬미가, 설교, 성령운동 등.
- 사제의 방향 변화: 이전에는 사제가 제대를 등지고 미사를 집전했지만, 공의회 이후에는 신자들을 향해 미사를 집전하게 되었습니다.
- 제대의 위치 변화: 제대가 벽에서 떨어져 공동체 중심에 배치되며, 그리스도를 공동체 중심에 모시는 상징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 영성체 방식 변화: 무릎 꿇고 입으로 성체를 모시던 방식에서, 서서 손으로 성체를 모시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가톨릭의 변화

- 여성 복사 및 Minister 허용: 1994년 이후 여성도 미사 복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2021년 교회법 개정으로 법적으로 인정), 평신도 Minister 제도를 만들어 남녀 평신도들에게 독서자(Lector), 성체 분배자(Eucharistic Ministers), 성가대 등 다양한 직무가 주어졌습니다.
- 성경과 말씀 전례의 강화: 성찬 전례 중심에서 벗어나, 말씀 전례도 동등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성경과 찬미가 보급과 연구 활성화: 성경 번역과 찬미가 보급이 활발해졌고, 성서위원회 설립 및 공동번역 성경 출간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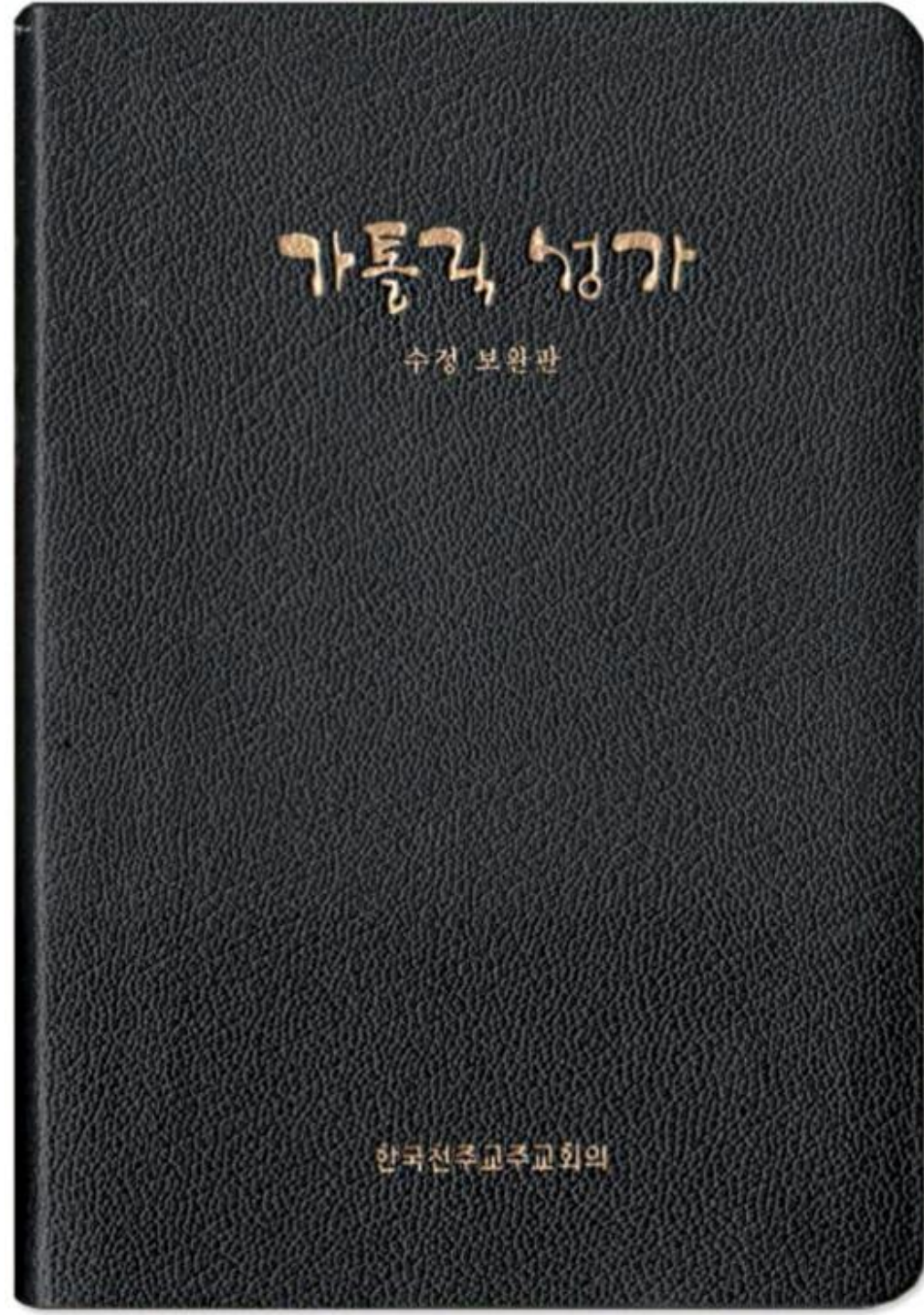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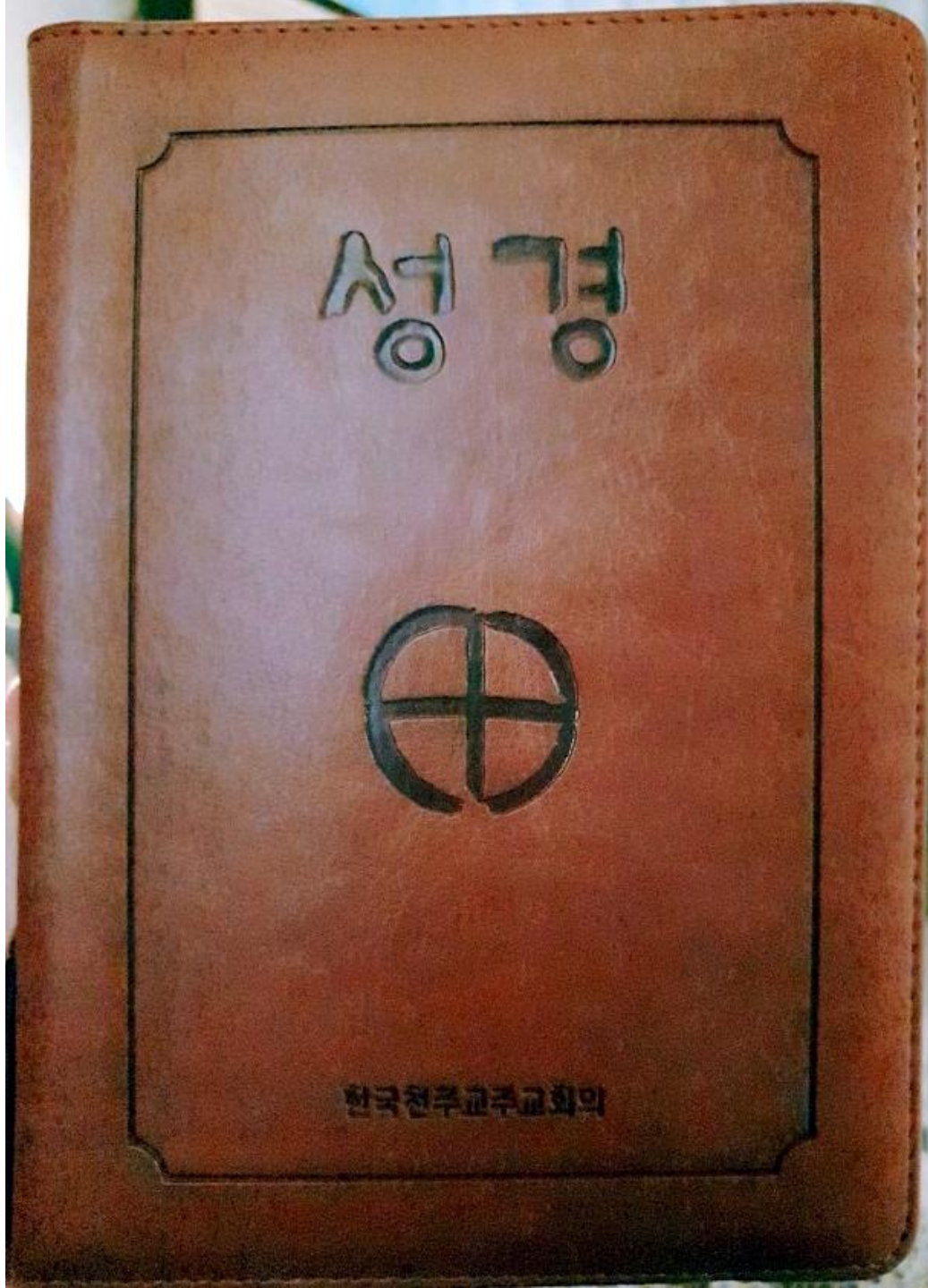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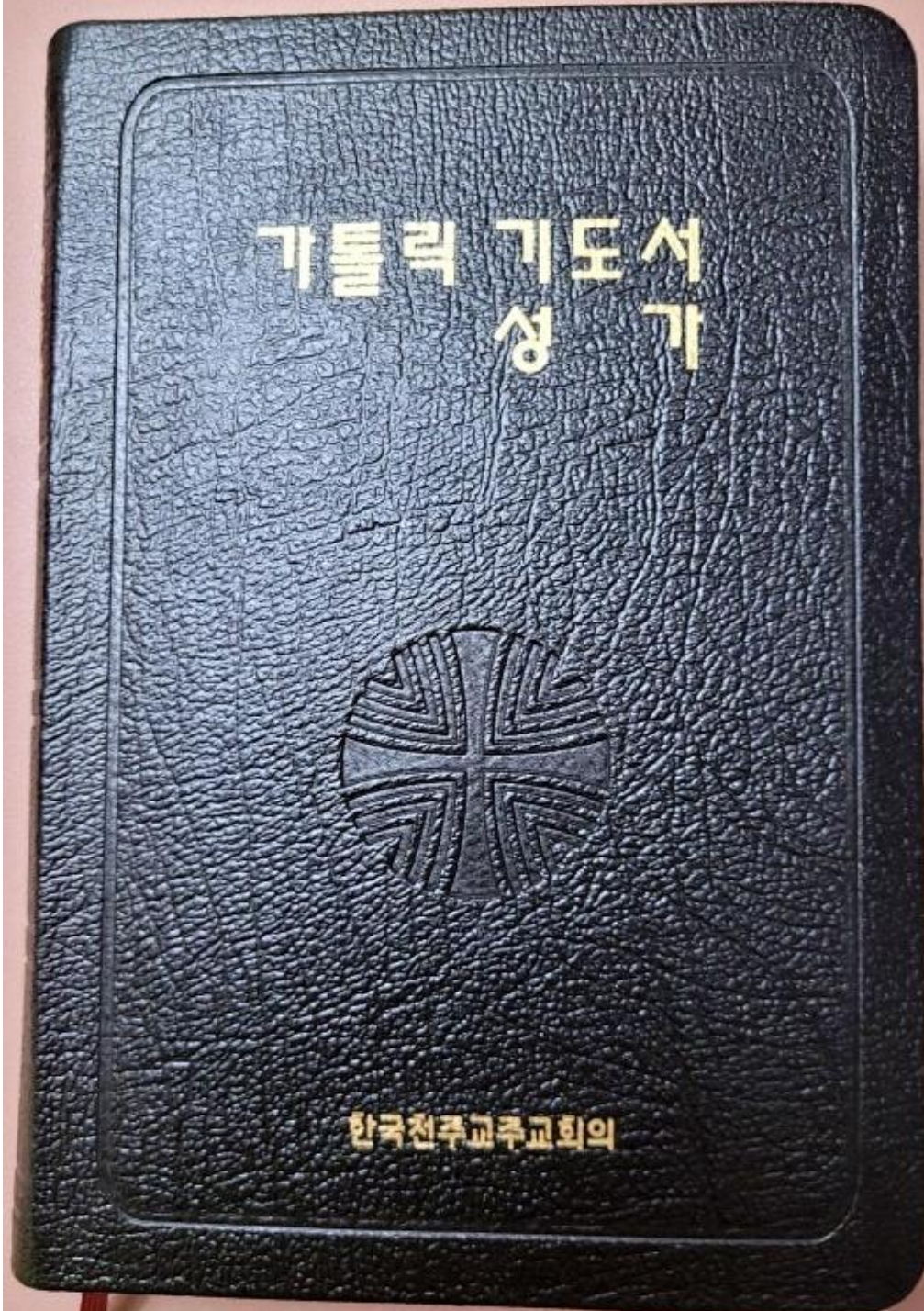
미사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rC4LRZBVz8&t=1439s>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가톨릭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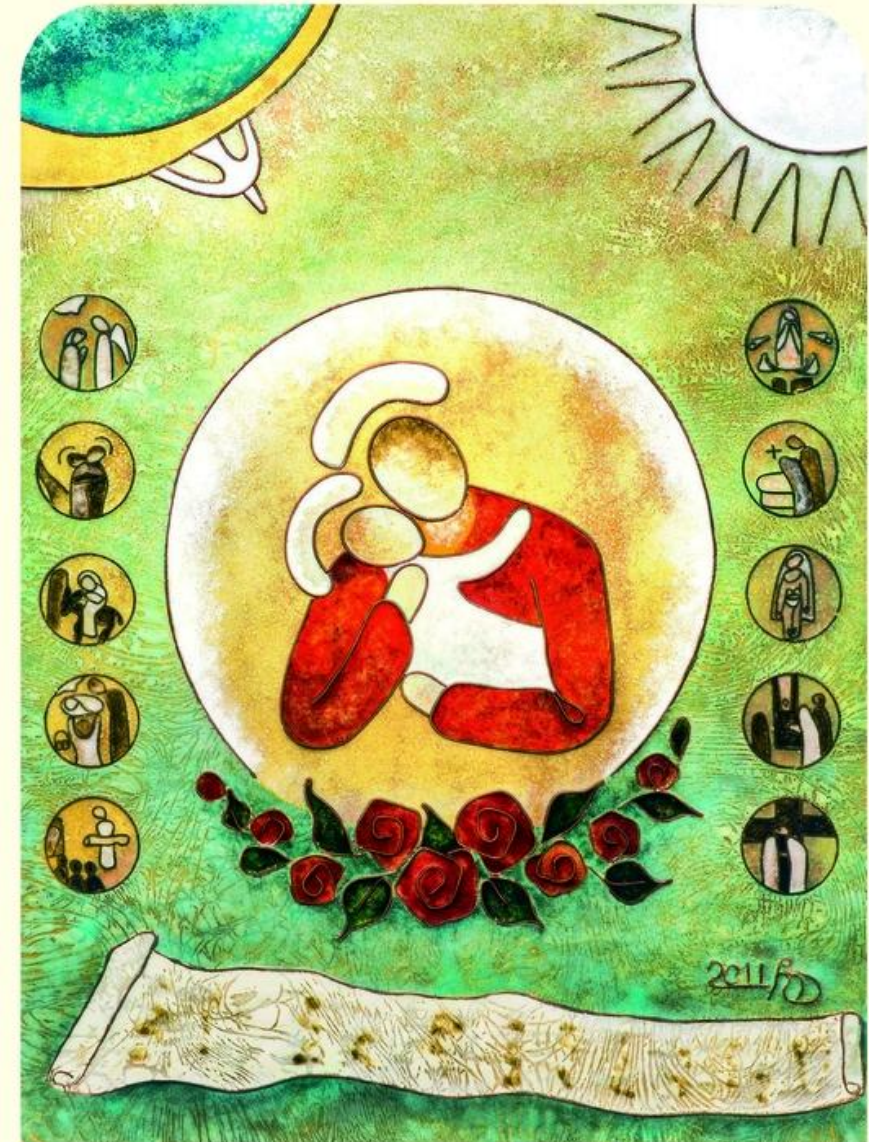
- 전례 주년의 재구성: 성인 축일 중심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를 중심으로 한 전례력(대림-성탄-연중-사순-부활-연중)이 정립되었습니다.
- 타 종교 및 개신교와의 대화: 교회 일치 운동이 활발해졌고, 개신교와 공동번역 성경을 출간하는 등 협력의 길이 열렸습니다.
- 현대 세계와의 소통: 교회가 사회 정의, 인권, 평화 등 현대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 이로 인해서 신자들이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교회가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도록 이끈 흐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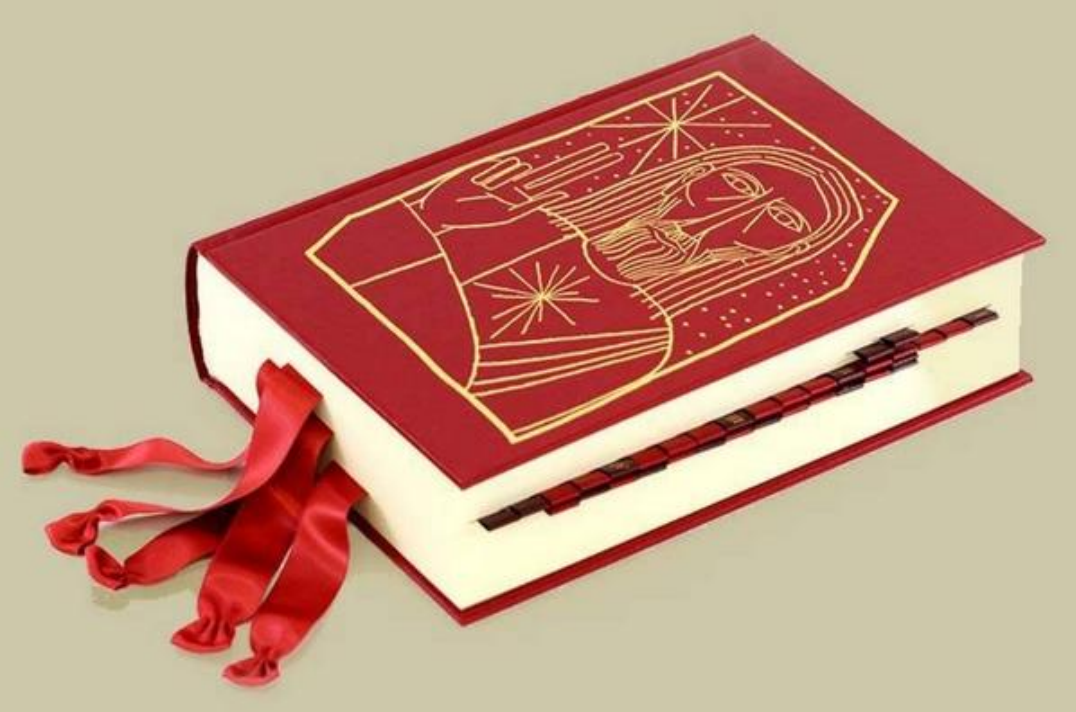




매일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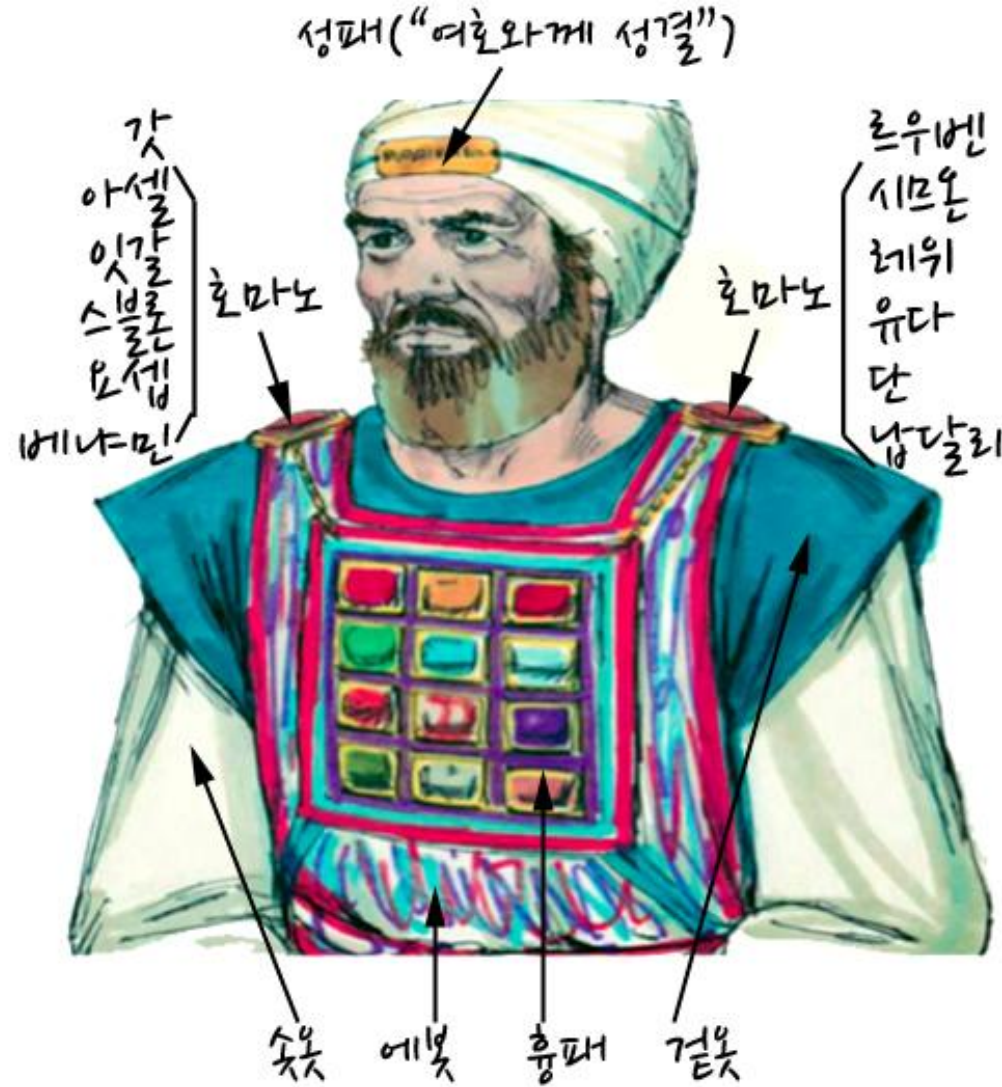
2024 나해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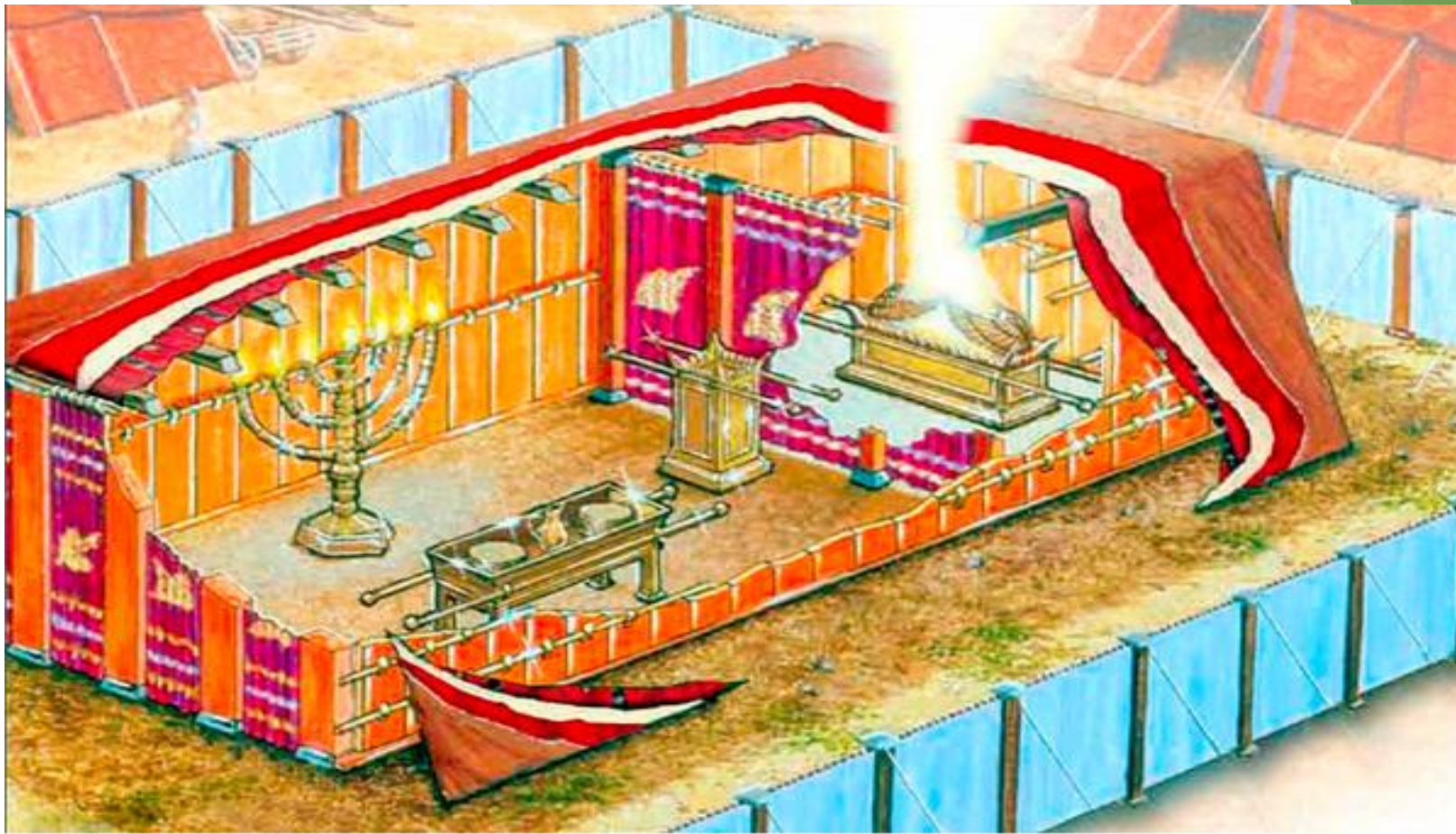
1.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 추가한 교리와 전통들

유대교에
서는 대제
사장 또는
제사장들
을 통해서
만 하나님
께 나아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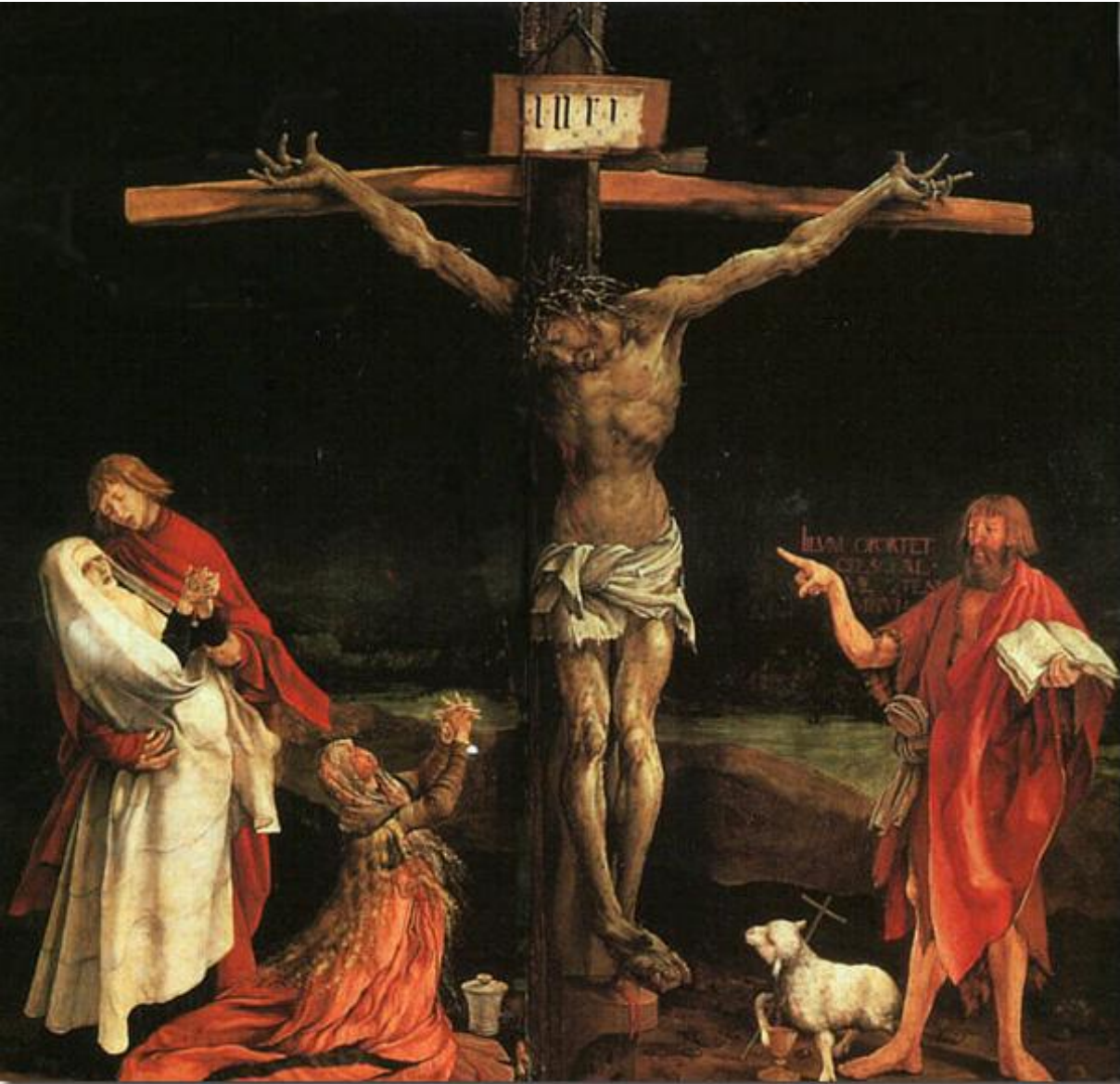
대제사장 (Kohen Gadol)의 예복 (출 28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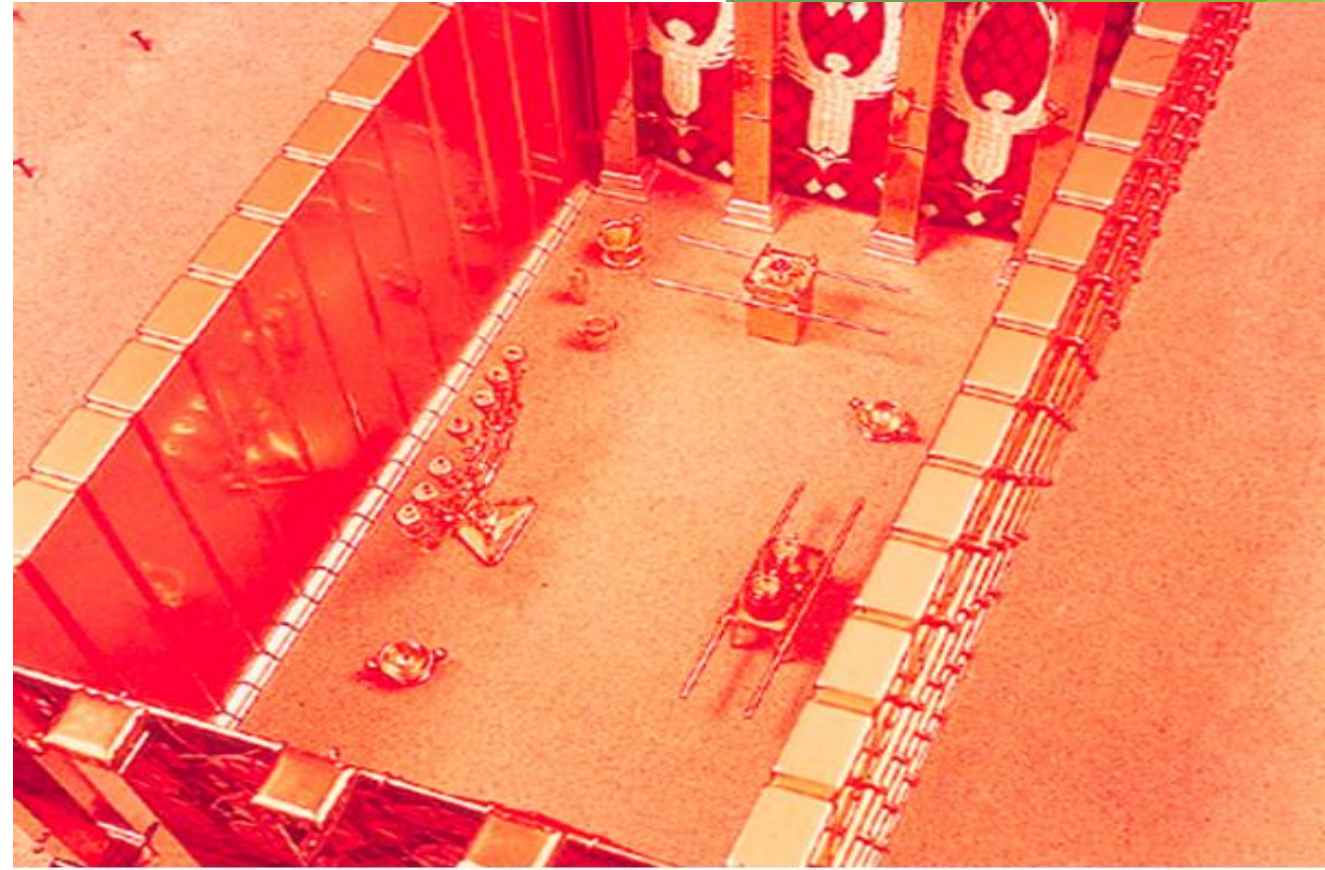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
메노라가 성소의 왼쪽에, 진설병 상이 오른쪽에,
휘장 앞에 분향단이 놓였고, 지성소 서쪽 끝에 법궤가 놓였다.

유대교의 대제사장은 일년에 단 하루 티쉬레이월 10일(추석 5일전)에 2-3 차례만 지성소 법궤 앞 곧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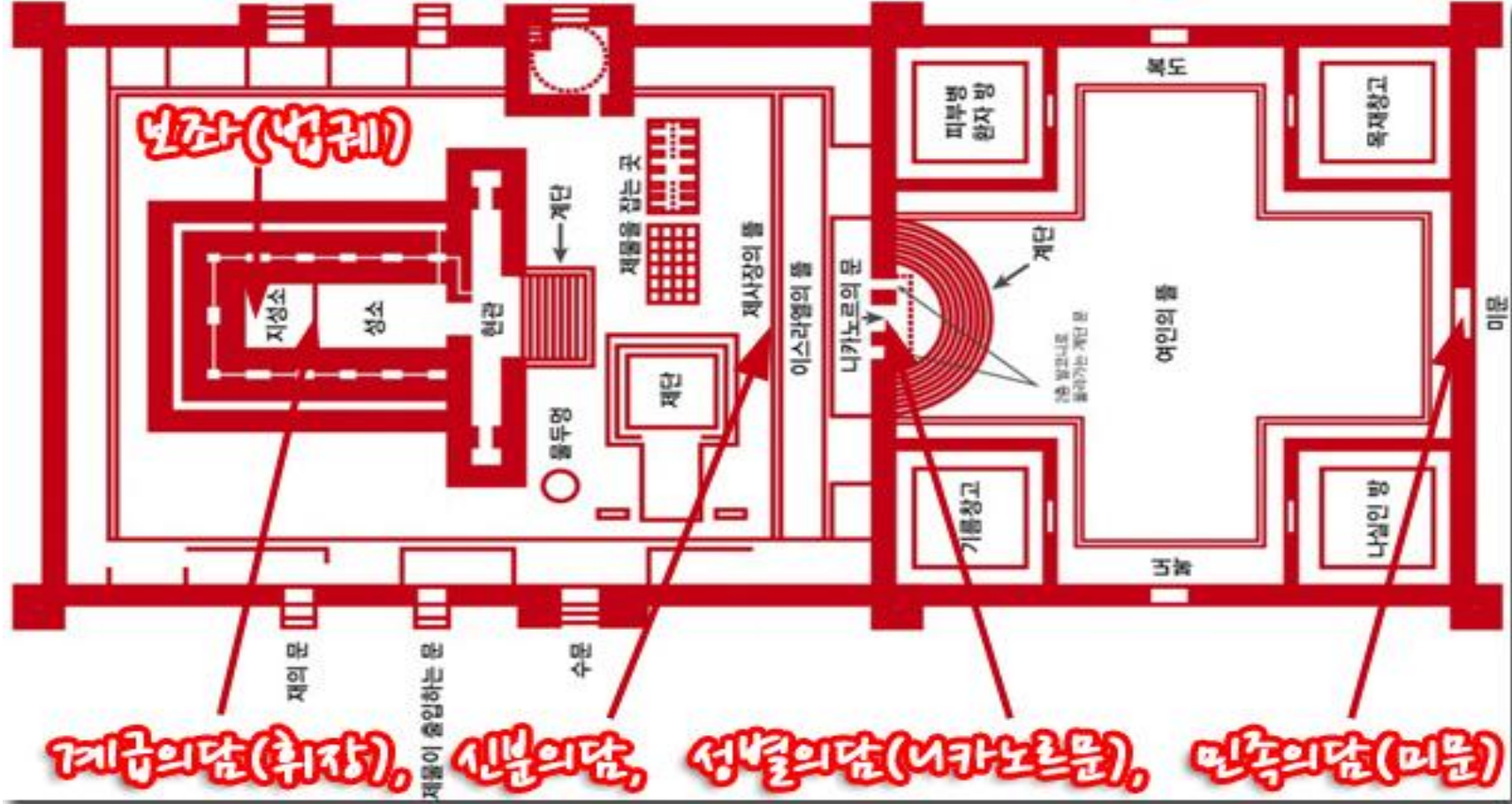


이젠하임 제단화: 십자가 처형부분(1515년, 마티아스 그뤼네발트)
우측에 침로게 요한이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좌측에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가 간절히 기도
하고 있다. 젊은 제자 요한이 성모 마리아의 허리를 데어안고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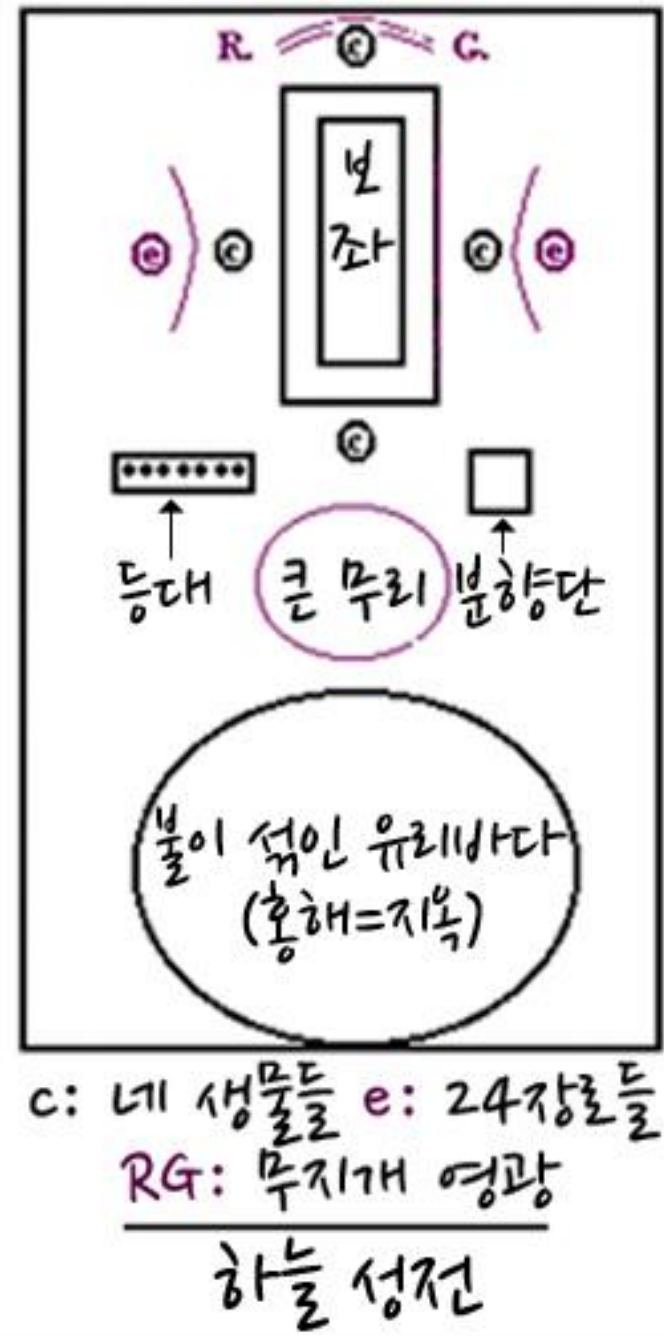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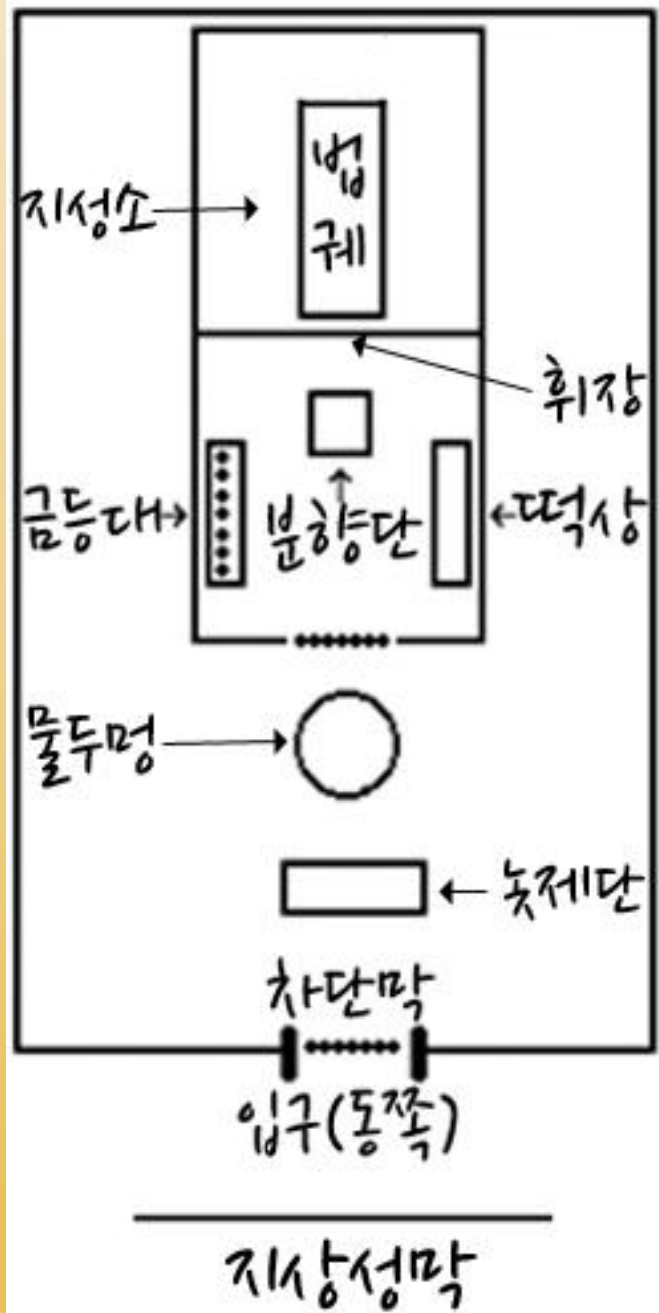
성막의 성소 내부. 체루빔이 수놓아진 휘장 뒷쪽이 지성소이다.
성소 출입구 왼쪽 편에 금등대, 오른쪽 편에 금판으로 쓴 진설병상,
휘장 앞쪽에 금판으로 쓴 분향단과 기타 기구들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새로운 살
길” 을 열어주셨다(히 4:16, 10:20,
엡 2:14-18).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가 찢기신 것을 휘장이 갈라져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로 통합된 것에 비교하였다. 성전은 우주의 축소판이고 성소 휘장은 지상의 모든 담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성소 휘장이 갈라진 것은 지상의 담들 곧 이방인을 차별하는 민족의 담, 여성을 차별하는 성별의 담, 신민의 담 및 계급의 담이 허물어졌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분이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지상 성막은 차단막으로 일반인 출입을, 성소 휘장과 지성소 휘장으로 일반 제사장들의 출입을 막고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법궤)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구조이지만, 하늘 성전은 일체의 차단벽이 없는 구조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성소)에서 안식한다는 것이 신약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늘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계 4-5장)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나누지 않으며, 성소 바닥이 수정처럼 맑고 깨끗하다. 대신에 삼라만상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바친다. 중앙에 백옥과 홍옥 같은 신 야훼께서 보좌(법좌)에좌정하시고, 그 둘레에 비치옥 같은 무지개 아우라가 펼쳐져 있으며, 여섯 날개와 수많은 눈을 가진 네 생물(케루빔)이 밤낮으로 삼성창을 부른다.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을 밝힌 메노라가 있고, 보좌 둘레에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장로(신구약시대 하나님의 종들의 대표)가 금관을 벗어 바치며 엎드려 야훼께 경배와 찬양을 바친다. 인류의 속죄를 위해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어린양 예수님은 일곱 별과 일곱 눈을 가지고 야훼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좌정하여 계시신다.



The Pope's triple crown, with VICARIUS FILII DEI, the Roman numerals adding up to 666



교황 그레고리 16세(Gregory XVI, 1831~1846)의 삼중관.
상층에는 "VICARIUS", 중층에는 "FILII", 하층에는 "DEI"라고 새겨
"하나님의 대리자"를 자처했다.



1871년 벨지움에 의해 교황 비오 9세에게 바쳐진 삼중관.
라틴어로 상층에 CHRISTI VICARIO(그리스도의 대리자, Christ's Vicar),
중층에 IN TERRA(땅 위에, On Earth), 하층에 REGVM(왕들, Kings)이라고 새겼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주장하는 교황과 사도직 계승을 주장하는
사제들로 인해서, 곧 가톨릭교회의 유대교화로 인해서, 개인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시 막혀 버렸다

가톨릭교회가 원시교회의 질서(의식, 형식, 구조)에 추가한 것들

- 성수 Holy water (c. 117).
- 사순절 Lent (140).
- 유아세례 Infant baptism - first mentioned by Irenaeus(c. 170).
- 연옥 Purgatory (Origin - 230; Gregory - 593).
- 병상침례 Clinical “baptism” - Novatian (c. 250).
- 콘스탄티누스 회심 - 국가종교 Conversion of Constantine(312) - State Religion.
- 원죄 Original sin - Augustine (4th Century).
- 니케아 공의회 Council of Nicea (325).
- 사제직의 독신 Celibacy of the priesthood (305; 314; 692; 1015; 1074; 1123).
-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Praying for the dead (380).
- 개인 신앙고백 Private confession (390).

- 교황 직함 사용 Title “pope” first used by bishop at Rome (400).
- 로마감독 레오, 최고 권위 주장 Leo, bishop of Rome, declared supreme authority over Western churches(450). (Gregory VII - decreed only pope - 1073).
- 성도들의 교제(성인 전구) Invocation of saints (private - 470; publicly - 600). 성인에게 전구/중재를 요청. 예: "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성체성사 The Eucharist (490).
- 아이콘 허용 Images (500; Council of Nicea - 787 sanctioned).
- 종부성사(마지막 도유, 약 5:14-15, 제2차 바티칸공의회후 병자성사) Extreme Unction (528).
- 라틴어 미사 Mass in Latin (666; 1215).
- 교회와 국가 통합 Church and State combined (728).
- 사면권 Absolution (750, 요 20:23).
- 분향 Incense (790).
- 교회전통 수용 Tradition accepted (Fourth Council of Constantinople - 869).

- 성자 시성 Canonization of saints (884; authorized - 1160).
- 사면권 Absolution (1000).
- 성체신학(화체설) Transubstantiation (1000).
- 동서교회로 분열 First major split in Christendom (1054). Major issues - authority, celibacy, images, sprinkling. Result - Greek Orthodox and Roman Catholic churches.
- 비밀고해성사 Auricular confession - Fourth Vatican Council (1215).
- 약식세례 Sprinkling (1311).
- 면죄부 판매 Sale of indulgences - (1390; 1515).
- 주의 만찬 때 분잔 배제 People deprived of cup at Lord's Supper(1414).
- 원죄 없는 잉태 Immaculate Conception (1439; 1457).
- 연옥 교리 강화 Purgatory (1563). (Council of Trent - 18 years - 1545 - 1563 - passed on matters of doctrine, 15 decrees, 44 chapters, 113 canons and enforced these doctrines by 125 anathemas!).
- 교황 무류설 Papal infallibility -1870 - Pope Pius IX.

430, 605 보편성에 대비시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보편성을 내세운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로마 5.19).

2606 403 바오로 사도의 뒤를 이어 교회는, 인간을 짓누르는 엄청난 비참이나 죄와 죽음으로 기울어지는 인간의 경향을 아담의 범죄 사실과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혼의 죽음’인 죄에 물들어, 죄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과도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항상 가르쳐 왔다.²⁹²⁾ 신앙의 이 확신으로 교회는, 인격적으로 아직 죄를 범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죄의 사함을 위한 세례를 주는 것이다.²⁹³⁾

360 404 어떻게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의 죄가 될 수 있는가? 모든 인류는 “마치 한 사람의 한 몸과 같이”²⁹⁴⁾ 아담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류의 단일성’으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연관되듯이 아담의 죄와 연관된다. 그러나 원죄의 전달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신비이다. 아담이 원초적 거룩함과 의로움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시를 통하여 알고 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자에게 굴복함으로써 지은 죄는 개인의 죄이지만, 그 죄가 타락한 상태로 전달될 인간 본성에 영향을 미쳤다.²⁹⁵⁾ 이 죄는 인간 번식을 통하여, 곧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실한 인간 본성의 전달을 통하여 모든 인

292. 트리엔트 공의회, 제5회기, 원죄에 대한 교령, 제2조: DS 1512 참조.

293. 트리엔트 공의회, 제5회기, 원죄에 대한 교령, 제4조: DS 1514 참조.

294. 성 토마스 데 아퀴노, 「악에 관한 논제」, 4, 1, c: Ed. Leon, 23, 105.

295. 트리엔트 공의회, 제5회기, 원죄에 대한 교령, 제1-2조: DS 1511-1512 참조.

류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 때문에 원죄를 유비적으로 ‘죄’라고 부르는 것이다. 원죄는 ‘범한’ 죄가 아니라 ‘깊어진’ 죄이며, 행위가 아니라 상태이다.

405 원죄는 비록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기는 하지만,²⁹⁶⁾ 아담의 어떤 후손에게도 개인의 잘못이라는 성격을 가지지는 않는다. 원초적 거룩함과 의로움은 잃었지만, 인간 본성이 온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다. 인간 본성이 그 본연의 힘에 손상을 입고 무지와 고통과 죽음의 세력에 휘둘리며 죄에 기우는 것이다(악으로 기우는 이 경향을 ‘탐욕’이라고 부른다). 세례는²⁹⁷⁾ 그리스도 은총의 생명을 줌으로써 원죄를 없애고 인간을 하느님께 돌아서게 하지만, 약해지고 악으로 기우는 인간 본성에 미친 결과는 인간 안에 집요하게 남아서 영적인 싸움을 치르게 한다. 2515 1264

406 원죄의 전달에 관한 교회의 교리는 5세기 펠라지우스 이단에 반대하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사색에서 특히 자극을 받았고, 16세기에는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개혁에 대항하여 세부적으로 확정되었다. 펠라지우스는 인간이 하느님 은총의 필연적인 도움 없이 자신의 자유 의지의 자연적 힘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아담의 죄의 영향을 단순히 나쁜 표양 정도로 축소시켰다. 이와는 반대로 프로테스탄트의 초기 개혁자들은, 인간은 원죄의 죄로 근본적으로 타락했으며 그의 자유는 소멸되었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인간이 저마다 물려받은 죄와 악으로 기우는 경향(탐욕)을 동일시하여, 이 경향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교회는 529년 제2차 오랑주 공의회와²⁹⁸⁾ 1546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²⁹⁹⁾ 특히 원죄에 관하여 계시된 내용의 의미를 밝혔다.

296. 트리엔트 공의회, 제5회기, 원죄에 대한 교령, 제3조: DS 1513 참조.

297. 제2차 오랑주 공의회, 제1-2조: DS 371-372 참조.

298. 트리엔트 공의회, 제5회기, 원죄에 대한 교령, 제1조: DS 1510-1516 참조.

1996 야 한다.⁴⁴⁾ 모든 사람이 그러한 부름을 받는다. 구원의 은총이 완전히 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특히 어린이 세례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출생 후 가까운 시일에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면, 교회와 부모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한한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된다.⁴⁵⁾

1251 그리스도인 부모는 어린이 세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생명을 양육하는 역할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⁴⁶⁾

1252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전통이다. 이것은 2세기부터 분명하게 확인된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도하기 시작한 때부터 온 “집안”이 세례를 받을 때⁴⁷⁾ 어린아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⁴⁸⁾

신앙과 세례

1123 **1253** 세례는 신앙의 성사이다.⁴⁹⁾ 그러나 신앙을 위해서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오로지 교회의 신앙 안에서만, 신자 개개인이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세례를 위해서 완전하고 성숙한 신앙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신앙의 출발이 필요한 것이다. 예비 신자나 대부모는

168 “하느님의 교회에 무엇을 청합니까?”라는 질문에 “신앙을 청합니다.” 하고 대답한다.

44. 트리엔트 공의회, 제5회기, 원죄에 대한 교령, 제4조: DS 1514 참조.

45. 교회법 제867조: 동방 교회법 제686조 1항 참조.

46. 교회 헌장, 11, 41항: 사목 헌장, 48항: 교회법 제774조 2항, 제1136조 참조.

47. 사도 16, 15, 33; 18, 8; 1코린 1, 16 참조.

48. 신앙교리성, 훈령 *Pastoralis actio*, 4: AAS 72(1980), 1139면 참조.

49. 마르 16, 16 참조.

1254 어린이든 어른이든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의 신앙은 세례 후에도 계속 성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해마다 부활 성야에 세례 서약 갱신 예식을 거행한다. 세례를 위한 준비는 새 생활의 문턱까지 인도할 뿐이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삶의 근원이며, 이 근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솟아 나온다. 2101

1255 세례의 은총이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이 중요하다. 이것은 대부나 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대모는, 어린이든 어른이든 새로 세례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줄 능력과 의향이 있는 견실한 신자라야 한다.⁵⁰⁾ 그들의 임무는 참다운 교회적 의무이다.⁵¹⁾ 교회 공동체 전체는 세례에서 받은 은총을 키워 주고 지켜 줄 책임이 있다. 1311

V. 누가 세례를 줄 수 있는가?

1256 세례의 일반적인 집전자는 주교와 사제이며, 라틴 교회에서는 부제도 집전한다.⁵²⁾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까지도, 세례 집전에 합당한 의향을 지니고 있는 경우, 성삼위의 이름이 명시된 세례 양식문을 사용하여 세례를 줄 수 있다.⁵³⁾ 합당한 의향이란 교회가 세례를 주면서 행하고자 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회는 비신자라도 세례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보편적 구원을 원하시는 하느님의 의지와⁵⁴⁾ 구원을 위한 세례의 필요성에서⁵⁵⁾ 찾는다. 1239-1240 1752

50. 교회법 제872-874조 참조.

51. 전례 헌장, 67항 참조.

52. 교회법 제861조 1항: 동방 교회법 제677조 1항 참조.

53. 교회법 제861조 2항 참조.

54. 1티모 2, 4 참조.

55. 마르 16, 16 참조.

느님의 말씀을 읽음, 뉘우치도록 권고함, 죄를 인정하고 사제에게 밝히는 고백, 보속을 정해 주고 받음, 사제의 사죄경, 감사의 찬미, 사제가 고백자를 축복하여 돌려보냄 등.

- 1449 **1481** 비잔틴 전례에서는 용서의 신비를 놀랍도록 잘 표현하는 여러 가지 탄원 형태의 사죄경이 있다. “하느님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에인자 나탄을 통하여 그를 용서하셨으며, 베드로가 슬피 울었을 때 그를 용서해 주셨고, 죄 많은 여자가 당신 발에 눈물을 쏟았을 때 그를 용서해 주셨으며, 세리와 당자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하느님께서 죄인인 나를 통하여 이 세상과 내세에서 그대를 용서하시어 하느님의 무서운 심판 대전에 섰을 때 그대를 단죄하지 않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아멘.”⁸⁹⁾

- 1482** 고해성사는 여럿이 함께 고백을 준비하고, 받은 용서에 대해 함께 감사하는 공동 거행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때 개인적인 죄의 고백과 개별적인 사죄는, 독서와 강론, 공동의 양심 성찰, 공동의 용서 청원, 주님의 기도, 공동의 감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말씀 전례 안에 삽입되어 있다. 고해성사의 이 공동 거행은 참회의 교회적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한다. 고해성사는 그 거행의 방식이 어떠하든, 본질상 언제나 전례 행위이며, 교회적이고 공적인 행위이다.⁹⁰⁾

- 1401 **1483**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에 일괄적으로 고백하고 일괄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고해성사의 공동 거행이 가능하다. 중대한 필요란, 죽음의 위험이 임박하여 한 사제나 여러 사제가 고백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들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경우를 말한다. 중대한 필요는, 또한 고백자들의 수로 보아, 적절한 시간 안에 각자의 개별 고백을 듣기에는 고해 사제의 수가 부족하여서, 고백자들이 자기들의 탓 없이 오랫동안 성사의 은총을 받지 못하거나 영성체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경우에 사죄가 유효하려면 신자들이 적절한 때에 자신들의 대죄를 고백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⁹¹⁾ 일괄 사죄에 요구되는 조건의 여부는 교구장이 판단한다.⁹²⁾ 큰 축일이나 순례를 위해 많은

89. Εὐκολόγον τὸ μέγα(아테네, 1992), 222면.

90. 전례 헌장, 26-27항 참조.

91. 교회법 제962조 1항 참조.

92. 교회법 제961조 2항 참조.

신자가 모이는 것은 이 중대한 필요성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⁹³⁾

1484 “물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사죄를 받는 개별 고백은, 신자들이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일반적 방식이다.”⁹⁴⁾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하나의 성사 안에서 활동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신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마르 2.5).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⁹⁵⁾ 정성을 기울여 고쳐 주시는 의사이시다. 그들을 일으켜 형제들과 다시 친교를 이루게 하신다. 그러므로 개별 고백은 하느님에 대한 화해와 교회에 대한 화해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형식이다.

간추림

1485 부활하신 날 저녁, 주 예수님께서 당신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2-23).

1486 세례 받은 다음에 지은 죄의 용서는 회개의 성사, 고백 성사, 참회의 성사, 화해 성사라고 불리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주어진다.

1487 죄를 짓는 사람은 하느님의 영예와 그분의 사랑을 손상하는 것이며, 하느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자신의 인간적 품위와, 그리스도인이 그 살아 있는 돌이 되어야 하는

93. 교회법 제961조 1항, 2 참조.

94. 「고해성사 예식서」, 일러두기, 31항(바티칸, 1974), 21면.

95. 마르 2.17 참조.

교회의 영적 선익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1488 신앙의 눈으로 보면, 죄보다 더 중대한 악이 없고, 죄인 자신과 교회와 세상 전체에 이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 없다.

1489 죄로 잃었던 하느님과 친교를 회복하는 것은, 자비로우시고 인간의 구원을 염려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에서 생기는 변화이다. 자신과 남을 위해 이 귀중한 선물을 청해야 한다.

1490 회개와 참회라고 불리는, 하느님께 돌아오는 이 전향은 지은 죄에 대한 고통과 후회,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회개는 과거와 미래에 관계되며, 자비로우신 하느님에 대한 희망으로 힘을 얻는다.

1491 고해성사는 고백자의 세 가지 행위와 사제의 사죄로써 이루어진다. 고백자의 세 가지 행위는 통회, 사제에게 죄를 말하는 고백, 그리고 보속하겠다는 결심과 그 이행이다.

1492 통회라고도 하는 참회는 신앙의 동기로 일어나야 한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통회를 하였다면 '완전한' 통회라 하고, 다른 동기에 근거를 두었다면 '불완전한' 통회라 한다.

1493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진지하게 양심을 성찰해서 기억해 낸, 아직 고백하지 않은 모든 대죄를 사제에게 고백해야 한다. 소죄의 고백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이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1494 고해 사제는 고백자에게 죄로 생긴 손해를 갚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생활 태도를 다시 갖추기 위한 '보상'이나 '속죄'를 하도록 권한다.

1495 교회 권위로부터 사죄권을 받은 사제들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

1496 고해성사의 영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 고백자에게 은총을 회복시켜 주는 하느님과 화해
- 교회와 화해
- 죽을죄로 받게 되었던 영벌의 사면
- 죄의 결과인 잠벌의 적어도 부분적인 사면
- 양심의 평화와 안온, 영적 위안
-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을 위한 힘의 증대

1497 개인적으로 대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에 따른 사죄를 받는 개별 고백만이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통상적 방식이다.

1498 신자들은 대사로써 자신과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죄의 결과인 잠벌을 사면받을 수 있다.

제5절 병자성사(病者聖事)

1499 "병자들의 거룩한 도유와 사제들의 기도로 온 교회는 수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 병자들을 맡겨 드리며, 그들의 병고를 덜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도록 간청하는 한편, 병자들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자유로이 결합시켜 하느님 백성의 선익에 기여하도록 권고한다."⁹⁶⁾

의 참된 신원과 자신들 본래의 이름을 간직하며, 간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발견한다고 할 수 있다.⁶¹⁸⁾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신 곳에 생명이 있고 하늘 나라가 있습니다.⁶¹⁹⁾

1026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 주셨다. 천국의 복된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결과를 완전히 차지하는 데 있으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고 당신의 뜻을 끝까지 충실하게 지켜 온 사람들을 하늘의 당신 영광에 참여시키신다. 천국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몸이 된 모든 사람의 복된 공동체이다.

1027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복된 친교의 이 신비는 모든 이해와 표현을 초월한다. 성경은 이를 생명, 빛, 평화, 혼인 잔치, 하늘 나라의 포도주, 아버지의 집, 천상 예루살렘, 낙원 등 비유적인 표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 준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1코린 2.9).

1028 하느님께서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인간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당신의 신비를 드러내 보이시거나 인간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실 때에만 그 참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천상 영광 안의 하느님을 뵈는 것을 교회는 ‘지복 직관’(至福直觀)이라고 부른다.

하느님을 뵈고, 당신의 하느님 주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과 영원한

617. 요한 14.3; 필리 1.23; 1테살 4.17 참조.

618. 복시 2.17 참조.

빛의 기쁨에 참여하는 영예를 누리며…… 하늘 나라에서 의인들과 하느님의 벗들과 함께 불멸의 기쁨을 얻어 누리는 것이 어찌 영광과 행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⁶²⁰⁾

1029 지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피조물 전체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기쁘게 계속 수행한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다”(묵시 22.5).⁶²¹⁾

III. 마지막 정화 - 연옥

1030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으려면 죽은 다음에 정화를 거쳐야 한다.

1031 교회는 선택된 이들이 거치는 이러한 정화를 연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죄받은 이들이 받는 벌과는 전혀 다르다. 교회는 연옥에 관한 신앙 교리를 특히 피렌체 공의회와⁶²²⁾ 트리엔트 공의회에서⁶²³⁾ 확정하였다. 교회의 전승은 성경의 어떤 대목들을⁶²⁴⁾ 참고하여 정화하는 불에 대해 이야기한다.

성령을 기슬려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마태 12.32)이라고 진리이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가벼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심판하기 전에 정화하는 불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어떤 죄들은 현세에

619. 성 암브로시오, 「루카 복음 해설」, 10, 121: CCL 14, 379(PL 15, 1927).

620. 성 치프리아노, 「서간집」, 58, 10: CSEL 3/2, 665(56, 10: PL 4, 367-368).

621. 마태 25.21, 23 참조.

622. 피렌체 공의회, 「그리스 교회에 대한 교령」: DS 1304 참조.

623. 트리엔트 공의회, 제25회기, 연옥에 대한 교령: DS 1820; 제6회기, 의화에 대한 교령, 규정 제30조: 1580 참조.

1125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성사 예식도 사제나 공동체가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교회의 최고 권위자도 전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며, 오로지 신앙에 순종하고 전례의 신비를 경건하게 존중하는 가운데 전례를 개정할 수 있다.

1126 한편, 성사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일치를 표현하고 발전시키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회복을 위한 대화에서 근본 기준의 하나이다.⁴²⁾

IV. 구원의 성사

1127 신앙 안에서 정당하게 거행된 성사는 그 성사가 의미하는 은총을 준다.⁴³⁾ 성사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효하다. 세례를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고, 성사가 의미하는 은총을 주시기 위해 성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다. 성부께서는 각 성사의 성령 청원 기도에서 성령의 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당신 성자의 교회가 바치는 기도를 늘 들어주신다. 마치 불이 자기에 닿는 모든 것을 태워 불로 변화시키듯이 성령께서는 당신의 힘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키신다.

1128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⁴⁴⁾ 성사들은 '사효적으로'(ex opere operato: '성사 거행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진다. 곧, 단 한 번에 영원히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성사는 그것을 주는 사람이나

1584 받는 사람의 의로움이 아닌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⁴⁵⁾ 성사가 교회의 의향에 따라 거행되면 집전자의 개인적인 성덕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그분 성령의 힘이 성사 안에서 성사를 통하여 작용한다. 그렇지만 성사가 맺는 결실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에도 달려 있다.

1257 1129 교회는 신약의 성사들이 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
2003 하다고 말한다.⁴⁶⁾ '성사의 은총'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총이며, 각 성사에 고유한 것이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성자와 같아지게 함으로써 치유하고 변화시키신다. 성사 생활의 효과는 인간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성령께서 신자들을 외아들이신 구세주와 근본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⁴⁷⁾

V. 영원한 생명의 성사

1130 교회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1코린 11.26),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때까지"(1코린 15.28) 주님의 신비를 기념한다. 전례는 사도 시대부터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의 "마라나 타"(Marana tha! 저희의 주님, 오십시오!, 1코린 16.22)라는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완성을 향하여 인도되어 간다. 그러므로 전례에서 기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나는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루카 22.15-16). 교회는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42. 일치 교령, 2항과 15항 참조.

43.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성사 일반 규정, 제5조: DS 1605; 제6조: DS 1606 참조.

44.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성사 일반 규정, 제8조: DS 1608 참조.

45. 성 토마스 데 아퀴노, 「신학 대전」, 3, q. 68, a. 8, c: Ed. Leon. 12, 100.

46. 트리엔트 공의회, 제4회기, 성사 일반 규정, 제8조: DS 1604 참조.

47. 2메드 1,4 참조.

시는 하느님의 의로우심에 우리를 부합하게 한다. 의화의 목적
294 은 하느님과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고,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
명의 선물을 주는 것이다.⁴⁶⁾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어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 주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이 죄들은 하느님께서 관용을 베푸실 때에 저질러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 주시어, 당신께서 의로우신 분이며 또 예수님을 믿는 이를 의롭게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십니다(로마 3, 21-26).

2008 **1993** 의화는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 사이에 협력 관계를 이룬다. 인간 편에서, 의화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동의 안에서, 그리고 그 동의에 앞서고 그것을 보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사랑으로 협력하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된다.

2068 하느님께서 성령의 비추심으로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 인간은 거절할 수도 있는 이 감동을 아무런 반응 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인간은 그의 자유 의지로써 하느님 앞에서 의화를 향해 나설 수 없다.⁴⁷⁾

1994 의화는 하느님 사랑의 가장 뛰어난 업적이다. 하느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며 성령을 통해 주어진다.

46. 트리엔트 공의회, 제6회기, 의화에 대한 교령, 제7장: DS 1529 참조.

47. 트리엔트 공의회, 제6회기, 의화에 대한 교령, 제5장: DS 1525.

아우구스티노 성인에 따르면, “불경한 사람의 의화는 하늘과 312
땅의 창조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
만, 선택된 사람들의 구원과 의화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
기”⁴⁸⁾ 때문이다. 그는 또한 죄인들의 의화는 천사들을 의롭게
창조한 일을 능가하며, 그것은 죄인의 의화가 더 큰 자비를 드
412 러내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995 성령은 내적 생활의 스승이시다. “내적 인간”을⁴⁹⁾ 태어 741
나게 하는 의화는 인간 존재 전체의 성화에까지 미친다.

나는 여러분이 지닌 육의 나약성 때문에 사람들의 방식으로 말합
니다. 여러분이 전에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에 종으로 넘겨
불법에 빠져 있었듯이, 이제는 자기 지체를 의로움에 종으로 바
쳐 성화에 이르십시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종이 되어 얻는 소득은 성화로 이끌어 줍니다. 또 그 끝
은 영원한 생명입니다(로마 6, 19, 22).

II. 은 총

1996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의화된다. 은총은 하느님의 153
자녀⁵⁰⁾ 곧 양자가 되고⁵¹⁾ 신성(神性)과⁵²⁾ 영원한 생명을⁵³⁾ 나누
어 받는 사람이 되라는 하느님의 부름에 응답하도록 하느님께
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이며 거저 주시는 도움이다.

1997 은총은 하느님의 생명에 대한 참여이다. 곧 은총은 우 375

48. 성 아우구스티노, 「요한 복음 강해」, 72, 3: CCL 36, 508(PL 35, 1823).

49. 로마 7, 22: 에페 3, 16 참조.

50. 요한 1, 12-18 참조.

51. 로마 8, 14-17 참조.

52. 2페드 1, 3-4 참조.

53. 요한 17, 3 참조.

260 리를 성삼위의 내적 생활 안으로 이끌어 준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로 신비체의 머리아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는다. 그는 '양자'로서, 외아들과 결합되어, 이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에게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고 교회를 이루시는 성령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1719 1998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러한 부름은 초자연적인 것이다. 이 부름은 스스로 거저 베푸시는 하느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만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름은 인간 지성의 능력과 의지의 힘을 초월하며, 어떤 피조물의 능력과 힘도 초월한다.⁵⁴⁾

1966 1999 그리스도의 은총은 무상의 선물이며,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을 죄에서 치유하여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당신 생명이다. 이 은총은 세례로써 받는 **성화 은총**(聖化恩寵, gratia santificans) 또는 **신화 은총**(神化恩寵, gratia deificans)이다. 이 은총은 우리 안에서 성화 활동의 샘이 된다.⁵⁵⁾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2코린 5.17-18).

2000 성화 은총은 사람이 하느님과 함께 살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완전하게 하는 **상존 은총**(常存恩寵, gratia habitualis)이며, 지속적이고 초자연적인 성향이다. 이 성화 은총, 곧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고 행동

하고자 하는 변함없는 마음가짐인 상존 은총은, 회개의 시작이나 성화 활동의 과정에서 하느님의 개입을 가리키는 **조력 은총**(助力恩寵, gratia actualis)과는 구별된다.

2001 은총을 받아들이도록 인간을 준비시키는 것은 은총이 이미 작용한 결과이다. 은총은 우리가 신앙을 통한 의화와 사랑을 통한 성화에 계속 협력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신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원의(願意)를 일으키심으로써 일을 시작하시며, 우리의 의지에 협력하심으로써 일을 완성하십니다."⁵⁶⁾

우리도 일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일하시는 하느님과 함께 일할 뿐입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를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치유하고자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앞서 있고, 일단 치유가 된 뒤에는 활기를 주려고 우리의 뒤를 따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가 부름을 받도록 우리를 앞서 있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뒤따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앞서 있고, 우리가 영원히 하느님을 모시고 살도록 우리를 뒤따릅니다. 하느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⁵⁷⁾

2002 하느님의 자유로운 주도(主導)는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자유와 더불어, 당신을 알고 사랑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유로울 때에만 사랑의 친교를 이룰 수 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직접 감동시켜 주시고 직접 움직이신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만 채워 주실 수 있는 진리와 선에 대한 갈망을 인간 안에 심어 주셨다. '영원한 생명'

54. 1코린 2.7-9 참조.

55. 요한 4.14; 7.38-39 참조.

56. 성 아우구스티노, 「은총과 자유 의지」, 17, 33: PL 44, 901.

57. 성 아우구스티노, 「본성과 은총」, 31, 35: CSEL 49, 258-259(PL 44, 264).

1807 그것이 선행일 때는 상이 주어지고, 악행일 때는 벌이 주어진 다. 공로는 정의의 덕과 관계되며 정의의 원리인 공평에 상응 하는 것이다.

42 2007 엄밀히 말해서, 하느님 앞에서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창조주께 받았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이루 헤아릴 길이 없다.

306 2008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공로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 은총에 협력하도록 자유로이 안배하셨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하느님의 아버지다운 활동은 인간을 감 155 도하심으로써 시작되며, 반면에 협력을 통한 인간의 자유로운 행실은 그 뒤를 잇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의 공로는 무엇보다 970 도 먼저 하느님의 은총으로 돌려야 하고, 그다음으로 신앙인에게 돌려야 한다. 실제로 인간의 공로 자체도 당연히 하느님께 돌려 드려야 하는데, 인간의 선행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주도와 도움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9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시켜 주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의로움의 결과로 참된 공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다. 바로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된 유산”을⁶⁴⁾ 받게 하는 은총에 의한 권리, 사랑의 완전한 권리이다. 우리 선행의 공로는 하느님 선의의 선물이다.⁶⁵⁾ 604 “먼저 은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려야 합니다. ……공로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⁶⁶⁾

64. 트리엔트 공의회, 제6회기, 의화에 관한 교령, 제16장: DS 1546 참조.

65. 트리엔트 공의회, 제6회기, 의화에 관한 교령, 제16장: DS 1548 참조.

66. 성 아우구스티노, 「설교집」, 298, 4-5: SPM 1, 98-99(PL 38, 1367).

2010 은총의 영역에서는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행사하신다. 그러므로 회개와 용서와 의화의 기원이 되는 최초의 은총을 받 1998 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최초의 은총을 받은 뒤 우리는 성령과 사랑의 인도를 받아,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의 성화를 위해, 은총과 사랑의 성장을 위해,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필요한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공로를 세울 수 있다. 지혜로우신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우리는 건강이나 우정과 같은 현세적 선익까지도 받게 하는 공로가 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은총과 선익은 그리스도인이 기도로써 청하는 것들이다. 기도는 공로가 되는 행실에 필요한 은총을 얻게 해 준다.

2011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세우는 모든 492 공로의 원천이 된다. 은총은 적극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킴으로써 우리 행위에 초자연적 성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하느님과 인간들 앞에서 공로가 되게 해 준다. 성인들은 항상 그들의 공로가 순수한 은총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세상의 귀양살이가 끝난 다음,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 주님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늘 나라를 위한 공로를 쌓기를 바라지 않고, 주님의 사랑만을 위해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이 끝 1460 날 때, 저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제 업적을 헤아려 주시기를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모든 의로움도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께서 바로 그 주님의 의로움으로 저를 꾸며 주시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주님을 영원히 소유하기를 원합니다.⁶⁷⁾

67.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 「자비로우신 하느님 사랑에 바치는 봉헌 기도」 (파리, 1992), 514-515면.

는 은총의 자극을 받아 하느님께 향하고 죄에서 등을 돌리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럼으로써 하늘의 용서와 의로움을 받는 것이다.

2019 의화는 죄의 용서와 성화와 내적 인간의 쇄신도 내포한다.

2020 의화는 그리스도께서 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얻어 주신 은총이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의롭게 된다. 의화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느님의 의로움에 일치시킨다. 의화의 목적은 하느님과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의화는 하느님 자비의 가장 뛰어난 업적이다.

2021 은총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소명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시려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이다. 은총은 우리를 성삼위의 내적 생활 안으로 이끌어 준다.

2022 은총의 활동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도적으로 먼저 인간을 준비시키시어, 인간이 자유롭게 은총에 따르도록 마련하신다. 은총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심오한 갈망을 충족시킨다. 은총은 인간이 자유로이 은총에 협력하도록 초대하고, 그 자유를 완성시켜 준다.

2023 성화 은총은 우리를 당신의 생명에 참여시키시려고 하느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선물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죄에서 치유하여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통해 우리 영혼 안에 이 선물을 부어 주신다.

2024 성화 은총 덕분에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령의 특은인 카리스마는 성화 은총을 위한 것이며, 교회의 공동선을 목적으로 한다. 하느

님께서는 여러 가지 ‘조력 은총’으로도 보살피시는데, 이 은총들은 우리 안에 언제나 머물러 있는 ‘상존 은총’과는 구별된다.

2025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쌓는 공로는 하느님께서 당신 은총의 활동에 인간을 참여시키려는 자유로운 계획에 따르는 것일 뿐이다. 공로는 우선 하느님의 은총에 속하고, 그 다음으로 인간의 협력에 속한다. 인간의 공로 역시 하느님께 속한 것이다.

2026 성령의 은총은,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의로움의 결과로 참된 공로를 세울 수 있게 한다. 사랑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세우는 공로의 원천이다.

2027 회개의 기원이 되는 첫 은총을 받을 만한 공로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령의 작용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을 위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데 유용한 모든 은총뿐 아니라, 필요한 물질적 재화까지도 얻게 해 주는 공로를 쌓을 수 있다.

2028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교 생활의 완성과 사랑의 완덕으로”⁷³⁾ 부름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의 완덕에는 한계가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완덕에 전혀 한계점이 없다는 바로 그 점이다.”⁷⁴⁾

2029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태 16, 24).

73. 교회 헌장, 40항 참조.

74.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 「모세의 생애」, 1, 5, M. Simonetti 편(비첸차, 1984), 10면(PG 44, 300).

〈그리스도교 신앙〉, 244-246쪽

- 가톨릭교회는 죄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은혜)을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 루터 시대에 프란체스코 수도승 신학은 죄인일지라도 이 은혜를 받아 낼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마르틴 루터가 속했던 아우구스티누스(어거스틴) 수도승 신학에서는 인간이 완전히 무능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先)은혜’(prevenient grace)를 부여하심으로써 성화케 하는 은혜(성화은총)를 받을 수 있는 일정한 공로를 쌓도록 한다고 믿었다.

- 여기서 선(先)은혜란 ‘작용하는 은혜’(operating grace) 또는 조력은총(助力恩寵, gratia actualis)을 말하고, 의지를 새롭게 하고 이해를 조명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나 회개를 말하며, 이로써 죄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 또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공로’ 또는 ‘일정한 수준’이란 중세교회가 가르쳤던 ‘재량공로’(載量功勞, meritum de congruo)를 말한다.
- 재량공로는 하나님의 성화은총으로 **의화(칭의, 성화에 더 가까움)**된 자의 행위가치를 일컫는 ‘적정공로’(適正功勞, meritum de condigno)와는 달리 **의화(칭의, 성화에 더 가까움)**되지 않은 자의 자연적 행위가치 곧 **성화은총을 받기 위한 일정수준의 행위의 가치**를 일컫는다.

- 가톨릭교회는 죄인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유의지** 즉 선과 악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 그러므로 성화는총이 없이도 죄인은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회개(**contrition**)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형벌을 피하기 위한 회개(**attrition**)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순종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성화케 하는 은혜 곧 성화는총을 받을 수도 있고, 이기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다고 가르쳤다.

- 그러므로 재량공로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상할 수 있는 지점에까지 죄인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 이를 가톨릭교회는 “자신 속에 있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Facienti quod in se est, Deus non denegat gratiam=To the one who does what is in him, God does not deny grace.)라는 말로써 표현한다.
-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예비행위에 대한 열매이다.
- 인간은 일정수준의 공로를 먼저 행하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 받는다.